

다윗의 평생 소원, 하나님 더욱 알기를 (시 27:4)

I. 시편 27편, 다윗의 시편

- A. 시 27편은 유명한 "원땡(Onething)"의 고백을 담고 있지만, 이 고백이 어떤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인지는 자주 간과되곤 한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대적, 혹은 원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며, 다윗은 그 가운데 1-6절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7-12절에서는 간구를, 그리고 다시 13-14절에서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치고 있다.

1 [다윗의 시]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²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³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흠정역, 확신하리로다) (시 27:1-3)

- B.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기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믿음을 고백한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믿음의 시련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왔던 다윗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다.
- C. 4절의 유명한 고백은 4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윗은 구하리니 (seek), 살면서 (dwell), 바라보며 (behold), 사모하는 (구하는, inquire)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자신의 갈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알며, 그분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삶의 계획이 필요하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⁵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⁶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 27:4-6)

- D. 5절에서는 다윗이 3가지 장소(초막/처소 속, 장막, 높은 바위 위)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한다. 이 장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고 믿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시편을 짓는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겠는가?

- E. 이제 7-12절에서는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인, 현실의 상황과 믿음의 고백 사이에 서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된다. 그는 현실 앞에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고 능력을 베푸시길 간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신다.

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
9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 ¹³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¹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 27:7-14)

- F. 다윗의 고백은 이제 마지막 2개 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비교. 시 23:6)을 신뢰하는 고백과, 강하고 (good courage), 담대하며 (strengthen your heart), 여호와를 기다리라(wait on the Lord)는 3가지를 자신의 마음을 향해 선포한다.
- G.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 상황이라도, 다윗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격려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기다림"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II. 다윗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삶

- A. 우리는 시편 27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중보하기를 원하는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이를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기 위해 추구하며(seek) 살았다. 다윗의 이 소원은 그의 은퇴 계획이 아니었으며, 그의 평생의 비전이었다.

¹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²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³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⁵ 여호와의 처소(성전) 곧 야곱(열린 하늘 경험, 천사와 씨름, 창 28/32장)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 132:1-5)

- B. 그는 하나님의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 삶을 바쳤으며, 이를 위해 정성을 다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다윗의 장막을 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와 아름다우심이 이 땅에 부어지는 일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며, 이 일을 위해 삶을 바쳤다.

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 69:9)

- C.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이 대적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부어지기를 구하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씨름을 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나가기를 멈추지 않았다.
- D. 우리는 가치(value)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닌,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국가와 개인의 생존 경쟁이 전면에 드러나고 그 이외의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시대로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거의 불가역(irreversible)하며, 전 세계의 안정을 추구하던 손들은 자국 안정을 위해 거두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 E. 이 때에 온 땅에 필요한 것은 초대 교회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다윗과 같이 그분을 아는 자(Knowledge of God)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중보하는 자(Intercessor)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역시 다윗과 같이 현실 속에서 뿌리를 박고 있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중보하는) 그것이라 (시 27:4)

- F. 우리는 한 가지의 일,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나가는 것(Knowledge of God)에 삶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심을 다해 걸어 나가야 한다.